

강진로컬푸드, 봄맞이 기획전 “농민과 소비자 활짝 웃다”

전년 대비 38% 매출 상승 14일간 1억 5,400만 원, 6주년 기념행사 대박

강진군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14일간 실시한 ‘로컬푸드 활성화 기획전’이 전년 대비 38% 매출 증가라는 성과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기획전은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열렸으며 행사 기간 동안 매장을 방문한 고객은 전 품목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약 1억 1,1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약 1억 5,4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약 4,300만 원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14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약 1,1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

업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6주년을 맞아 처음 실시한 할인 행사이자 군비와 로컬푸드 출하회 자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추진한 기획전의 성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 구조 정착과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또한 강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반값 관광’ 정책과 연계해 로컬푸드 매장에서 구매 영수증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았고, 이는 자연스러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기획전은 강진을 찾는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로컬푸드 소비뿐만 아니라 관광 수요 확대까지 동시에 이루어낸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농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자 강진의 대표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한 구매자는 “평소에도 저렴한 가격 때문에 애용했던 로컬푸드 농산물을 20%

나 더 할인된 가격으로 사다니 요즘같은 고물가시대에 믿을 수 없다”며 “농민과 소비자들을 생각하는 강진군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하며 양손 무겁게 집으로 귀가했다.

강진군은 향후에도 반값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보성군 울포솔밭해수욕장, 텐트 철거로 깨끗한 해변 되찾아

보성군 울포솔밭해수욕장 내 불법 야영 행위 금지 조치 시행

보성군은 지난 4월부터 울포솔밭해수욕장 내 무단 야영 행위와 장기간 방치된 텐트에 대해 강력한 계도 및 철거 조치를 시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울포솔밭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자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여름철 대표 명소로, 최근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해왔다.

이에 군은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2023.6.28. 시행)에 따라 장기 방치된 취사 및 야영용품 제거를 통한 해수욕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다.

군은 불법 텐트에 대한 현장 계도와 자진 철거 안내를 거친 후, 장기 방치된 시설에 대해 철거를 완료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수욕장은 본래의 공공 공간으로서 기능을 회복했으며, 쾌적하고 질서 있는 이용 환경을 되찾았다.



군 관계자는 “울포솔밭해수욕장은 이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관리를 통해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유지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함평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11월까지

만 51~70세 홀수년도 출생 대상… 함평성심병원서 검진

전남 함평군이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함평군은 12일 “만 51세(74년생)~70세(55년생)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함평성심병원에서 이달부터 11월까지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진은 반복적인 농작업과 농약 노출 등으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진 항목으로는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 및 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등 취약질환을 중심으로 총 5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진행된다. 또한 건강검진과 더불어 ▲근골격계 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예방 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검진은 지정병원인 함평성심병원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검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읍·면사무소 또는 함평성심병원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여성농업인은 반복적인 농작업과 농약 노출 등으로 인해 특정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되는 만큼 이번 건강검진이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고흥군, 2025년 농약 판매업체 합동점검 실시

51개 농약 판매업체 합동점검으로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관내 농약 판매업체 51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고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농업인의 안전과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고흥군과 타 시군의 농약 판매업 담당자로 구성된 2인 1조로 각 업체를 방문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부정·불량 농약의 보관·진열 및 판매 행위 ▲판매업 등록기준 위반 ▲농약 취급 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 작성 여부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 ▲농약 판매업체의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약을 공급하는 한편, 농약 유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농약 판매업체들이 안전하고 적합한 농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농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고흥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순천시, 여성농업인에 일손·건강·문화 전방위 지원

공동급식, 농가도우미, 건강검진, 행복바우처 등 지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일부터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번기 농촌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는 161개 마을이 참여해 지난해(148개 마을)보다 13곳이 늘어났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활동이 중단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도록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 중이다. 이 사업은 출산 전후 여성농업

인과 그 배우자인 남성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전후 총 180일 중 여성은 최대 70일, 남성은 최대 20일간 농가도우미를 통한 영농 대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월부터는 51~70세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신청이 시작된다. 올해 검진 지원 대상은 총 750명으로, 1인당 22만원의 검진비 전액을 지원받아 자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향유를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도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순천/정성인 기자



“축제는 끝났지만… 황룡강 봄꽃은 지금부터”

‘장성 뮤직 페스티벌’, 예술직업 체험, ‘정원 페스티벌’ 인기

장성군의 봄을 알린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가 11일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했다.

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선보인 올해 축제는 곳은 날씨에도 7만 3500여 명이 방문했다. 특히 국가스탠, 카더가든, 유다빈밴드, 범기, 연정, 리제, 이종민 7팀의 실력과 뮤지션들이 함께한 ‘장성 뮤직 페스티벌’의 열기가 뜨거웠다. 베틀과 거센 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축제를 즐긴 관객들은 이번 페스티벌의 진정한 주인공이었다.

일요일인 11일에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며 당일 방문객 수 4만 7000여 명을 기록했다. 꽃양귀비, 수레국화, 금영화 등 봄꽃들이 곳곳에서 꽃망울을 틔우며 사람들을 반겼다.

체험도 인기를 끌었다. 축제장에 마련된 예술직업 체험에선 아이들에게 미술작품 해설사(도슨트), 작가, 화훼전문가(플로리스트), 조향사가 되어보는 시간을 선사했다. 추억을 소환하는 미니 오락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원목놀이, 꽃길열차 등 놀거리도

호응을 얻었다.

그라운드골프장에선 그늘막에 앉아 향토식당, 간단먹거리 부스, 푸드트럭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편리했으며 ‘음악 나눔 버스킹’도 마련되어 흥겨움을 더했다. 환경을 생각해 모든 음식과 음료를 다회용기로 제공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장성군은 축제장 곳곳에 시가반납 장소를 마련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했다.

힐링허브정원 인근 ‘2025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에도 많은 방문이 이어졌다. 1.5km 구간에 걸쳐 초정정원, 작가정원, 시민참여정원을 설치했는데 황지해·김명운·박정아·박종완·서자유·박병훈 작가가 조성한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페스티벌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지만, 장성군은 해당 정원들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기후변화로 개화 시기가 늦어진 만큼 6월 초까지 감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 친지와 함께 아름다운 황룡강 꽃길과 정원을 거닐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해탈 같은
나보다 원한 사람을 만나고 가족이 많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려낼 수 없는 것이긴 한데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걸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치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